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h1>보도자료</h1>	2016. 3. 28(월)	
		작 성 문 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 과장 이순아 / 사무관 조해린 (Tel. 044-200-2185/2187)
<p>* 엠바고 : 3.28(월) 13시 30분(행사 종료)이후 사용</p> <p>* 말씀자료 별도배포</p>			

뉴 노멀 시대, 여성 경제활동 확대가 경제 활력 높인다

- 황교안 총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 개최

- 황교안 국무총리는 3.28(월)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릴레이 행보의 일환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단 및 2015년 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한무경 효림그룹 대표), 부회장 대표 (김현숙 경신 회장, 최옥이 비앤비데코 대표, 송기순 전일환경 대표, 이선희 박흥근홈패션 대표, 장선윤 고문당인쇄 대표, 이은자 철은인터 내셔널 대표, 박창숙 창우섬유 대표, 정분옥 장연다이아몬드 관광호텔 대표, 진덕수 대흥코스텍 대표, 이숙희 그린정보시스템 대표, 김유숙 상근 부회장), 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자(문지연 쿨뷰 대표, 이화정 247코리아 대표, 안용균 여유프렌드 대표), 중기청장, 여가부차관, 국무2차장 등

- 이날 간담회는 세계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 경제인들을 격려하고, 여성기업의 성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황 총리는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 속에 우리 경제도 대외여건 등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인 점을 설명하고,

* '03년 벤처캐피탈리스트 로저 맥너미가 처음 제시한 말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뜻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등이 세계 경제의 뉴 노멀로 논의됨

-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경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황 총리는 여성 경제인이 마음껏 일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 육아휴직·유연근무 확대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성화하고,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여성 경제인들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 문화적 감성과 포용력 등 여성 기업인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이에 여성기업제도 정부의 정책 노력을 환영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하였다.
- 한편, 황 총리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한국여성경제인협회(3.28일)에 앞서 대한상의(2.25일), 중기중앙회(3.10일), 무역협회(3.17일)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중견기업연합회(3.29일 예정)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 (붙임)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현황
 2. 여성기업의 현황 및 중요성
 3. 2015년 여성기업 지원정책 및 성과

□ **설립일** : 1999. 7. 10

※ 설립전신 : 1971.10 대한여성경제인협회(상공부허가 제583호)

□ **설립근거**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13조(한국여성경제인 협회의 설립 등) ①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회 장** : 한무경, 임기 3년('16. 1. 1 ~ '18. 12. 31)

□ **법인 성격** :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법정 경제단체

□ **조직 및 회원** ('16. 3. 21 기준)

- 회장(1), 상근부회장(1), 비상근부회장(15), 이사(40), 감사(2)
- 조 직 : 본회 및 16개 지회
- 회원수 : 2,300여개사

□ **'16년 예산**

- 회계운용 : 국고 지원 및 회비수입
- 예산규모 : 38.3억원(국고 22.4억원, 회비수입 15.9억원)

□ **주요활동(기능)**

-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및 여성기업 지원활동 촉진
-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네트워크 강화 등 전문 여성경제인 양성
-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국내·외 판로 확대 지원
- 여성기업 실태조사, 통계 분석, 여성기업 지원정책 개발 등
- 여성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외국 여성경제인단체와의 협력
- 여성의 창업지원 및 기타 정부위탁사업 수행

□ (여성기업 현황) 여성기업 수는 전체 사업체수의 39.1% (134만개)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여성기업 비율/사업체수(% , 만개) : ('11) 38.8/125 → ('12) 38.9/131 → ('13) 39.1/134

○ (일반현황) 여성기업은 숙박·음식업 및 도·소매업 비중이 높은 실정이며, 신설법인 중 여성기업의 비중이 증가 추세

* 업종별 현황(% , '13년 기준 전국사업체 조사, 통계청) : (숙박·음식) 32.7 (도·소매) 29.5 (개인서비스) 11.5, (교육서비스) 6.3 (제조업) 5.4 (지식서비스) 5.2

** 신설법인 여성기업 비중(%) : ('11) 21.8 → ('13) 22.9 → ('15) 23.7

○ (경영현황) 여성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고,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 건실하게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15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수익성) 여성 5.4 VS 일반 3.6 (부채비율) 여성 120.5 VS 일반 158.5

□ (여성기업의 중요성) 국가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여성기업이 첨병역할을 담당

○ 일반 중소기업보다 여성고용률이 높은 여성기업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경력단절 해소 및 일·가정 양립에 기여

* 중소기업 여성고용률('15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 (여성기업) 34.4, (중소기업) 26.5

- 또한, 지난 10년간 여성제조업의 평균 순일자리 증가율*은 4.5%로서 중소기업 2.7%보다 1.78%p 높게 조사

* 일자리창출('04~'13년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 여성제조업(4.5%), 중소기업(2.7%)

○ 여성친화적인 디자인, 콘텐츠 등 지식·감성기반 산업분야가 저출산·고령화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의 주역으로 등장

* 여성친화업종 : 패션, 디자인, 광고컨설팅, IT, 인터넷 쇼핑몰, 주얼리 등

□ (지원정책) 여성기업제품 판로촉진 및 여성창업 활성화

① '14. 1월부터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 중 물품 5%, 용역 5%, 공사 3%를 여성기업 제품을 의무구매

* 공공구매 의무화 이후 여성기업의 24.9%가 월 평균매출이 증가하고 이중 46.4%는 영업이익 개선효과가 10% 이상이라고 답변(여성기업 및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14.12)

② 앱, S/W, 콘텐츠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스마트 창작터 운영

* 181명의 ICT 여성 전문인력 및 31개 여성창업팀 발굴·육성

③ 18개 유망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실전형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실전창업스쿨 운영 등을 통해 여성창업 활성화

④ 여성창업 희망자를 대상 맞춤형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16개소)**를 운영하여 창업공간 및 컨설팅 지원

* 우수아이템 보유자, 여대생, 일반인 및 경력단절여성 대상 맞춤형 교육 확대

** 입주기업 매출액(억원) : ('12)500 → ('13)521 → ('14)606 → ('15)958

□ (지원성과) 여성기업제품 판로 확대 및 일자리 창출효과

① 여성기업제품 의무구매 등으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가 전년대비 29.1% 증가 예상('14, 5.5조원 → '15, 7.1조원 추정)

②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건수* 및 여성기업전용 입찰정보서비스를 이용한 여성기업의 매출액**이 증대

* 여성기업 발급수 : ('14)7,467건 → ('15) 8,151건 (전년대비 9.2% 증가)

** 입찰정보서비스 기업 매출액(기업 수) : ('14)1,127억원(589개) → ('15) 1,497억원(899개)